한화투자증권

2026년 3월 11일
해외기업분석

Oracle Corporation (ORCL)

AI 수주 증가 모멘텀 지속, CAPEX 우려 완화

▶Analyst 임해인 haein.lim@hanwha.com 3772-7799

Not Rated

Bloomberg컨센서스 목표가: USD 259.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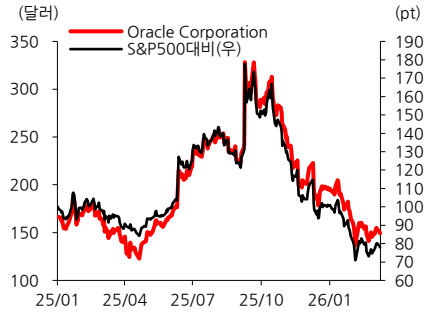
현재 주가(3/10, USD)	149.40
상승여력	▲ 73.7%
시가총액(백만 USD)	429,246
발행주식수(천주)	2,873,130
52 주 최고가 / 최저가(USD)	345.72 / 118.86
90 일 일평균 거래대금(백만 USD)	5,073.0
거래소	New York
국가명	UNITED STATES
티커	ORCL US QUITY
산업	정보기술

주가수익률(%)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수익률	-6.6	-33.0	-54.5	0.4
상대수익률(S&P500)	-4.3	-31.5	-58.3	-20.4

(단위: 백만 달러, 달러, %, 배)

재무정보	FY 2024	FY 2025	FY 2026E	FY 2027E
매출액	52,961	57,399	66,930	86,711
영업이익	23,055	25,033	28,350	34,616
EBITDA	26,184	28,900	36,012	49,163
지배주주순이익	15,709	17,284	17,434	18,951
EPS	5.56	6.03	7.35	7.97
순차입금	83,808	97,749	101,160	130,041
PER	30.2	37.4	20.3	18.8
PBR	37.1	22.7	12.5	7.3
EV/EBITDA	18.0	22.0	14.8	10.9
배당수익률	1.3	1.3	1.3	1.3
ROE	224.1	87.0	54.9	37.8

주가 추이



오라클의 FY 3Q26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실적과 가이던스 모두 컨센서스 대비 양호했고, 주가는 시간 외 8.7% 올랐습니다. 그동안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견조한 실적을 발표한 후에도 시간 외 거래에서 부진한 주가 반응을 보였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AI의 소프트웨어 대체 우려가 충분히 완화된 영향으로 해석됩니다. 가이던스에 따르면 4분기 및 2026 연간 매출 · EPS도 양호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주잔고는 3개 분기 연속 세 자릿수 성장률로 급증했고, 그에 맞춰 CAPEX를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수익성 우려를 일축했는데, AI 계약의 대부분이 고객 선결제 및 고객이 직접 GPU를 공급하는 구조로 진행돼 추가적 부채 발행 없이도 인프라를 확장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대규모 수주잔고로 중장기 매출이 확보된 가운데, 조정된 주가는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FY 3Q26 분기 실적

오라클의 FY 3Q26 매출액은 172억 달러(YoY +21.7%), EPS는 1.79 달러(YoY +21.8%)로 각각 컨센서스를 1.8%, 5.3% 상회했다. 15년 만의 최고 분기 실적을 경신했다. 영업이익은 74억 달러(YoY +9.8%)로, 예상치 대비 5.3% 견조했다. AI 클라우드 컴퓨팅 수요 급증으로 분기말 수주잔고는 5,530억 달러(YoY +325%)를 기록했다. 매출총이익률은 65.9%(YoY -5.9%p), 영업이익률은 42.9%(YoY -0.9%p)였다. 2026 회계연도 3개 분기 동안 9,500만 달러의 자사주를 매입했는데, 전년 동기(3개 분기 기준, 4.5억 달러) 대비 대폭 감소했다. 2월에 50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 목표를 발표했고, IG 채권 및 우선주 발행으로 300억 달러를 완료했다.

FY 4Q26 & 2026 & 2027 가이던스

오라클은 FY 4Q26 가이던스로 달러·중간값 기준 매출액 191억 달러(YoY +20%, vs. 컨센서스 191억 달러), EPS 1.98 달러(YoY +16%, vs. 컨센서스 1.95 달러)를 제시했다. 총 클라우드 매출 성장률은 46% ~ 5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6 연간 가이던스는 매출 670억 달러(YoY +16.7%, vs. 컨센서스 670억 달러), CAPEX 500억 달러(YoY +136%)로 유지했다. 2027 매출액 목표는 900억 달러로 상향했는데, AI 인프라 수요가 견조하고 수주잔고가 급증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사업부별 분기 실적 상세

오라클의 사업부는 클라우드·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서비스로 구분돼 있고 FY 3Q26 매출액은 각각 150억 달러(YoY +23.9%, 7.1억 달러(YoY +1.6%), 14.4억 달러(YoY +11.8%)를 기록했다. 클라우드와 소프트웨어 매출은 각각 89.1억 달러(YoY +43.5%), 61.2억 달러(YoY +3.3%)였고 사업부 내 매출 비중은 59.3%, 40.7%로 집계됐다.

1) 클라우드 인프라(IaaS, 일부 PaaS): 매출액 49억 달러(YoY +84.8%)로 역대 최고 성장률을 기록했고, AI 인프라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3% 성장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타사 클라우드에서도 사용 가능하게 됨에 따라 멀티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31% 급증했다. 향후 3년 내 가동될 10GW 이상 규모의 전력 및 데이터센터 용량을 확보했고, 랙 인도 후 매출 발생까지 걸리는 시간을 60% 단축하는 등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2)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SaaS): 매출액은 40억 달러(YoY +12.4%)였다. 기업용 앱인 Fusion Cloud 제품군에 1,000개 이상의 AI 에이전트를 탑재했고, 뱅킹 부문에서는 추가 비용 없이 수백 개의 에이전트 기능을 이용 가능하도록 했다. 오라클은 최근 AI를 활용해 영업, 웹사이트 생성기 등 3종의 새 CX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했는데, 이는 대표적 SaaS 경쟁 기업인 세일즈포스에는 없는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3) 소프트웨어(기존): 전체 매출액 61억 달러(YoY +3%)로, 고정 통화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1% 역성장했다. 많은 고객이 전통적 라이선스 모델에서 클라우드 구독 모델로 전환하고 있는 영향으로 해석된다. 소프트웨어 지원 부문(50억 달러, YoY +4%, CC flat)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매출 구조를 바탕으로 오라클 영업이익률을 지지하는 안정적 수익원 역할을 하고 있다.

CAPEX 관련 수익성 우려 완화 & 소프트웨어 반등 본격화

오라클은 온프레미스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기업용 소프트웨어 회사였고, 2016년 전후 OCI(Oracle Cloud Infrastructure)를 중심으로 클라우드 인프라를 확대하기 시작했다. 2023년 이후에는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연산 수요 증가에 대응해 GPU 클러스터 기반의 AI 인프라 클라우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데이터센터에 대규모 GPU 서버를 구축하고,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한다. 클라우드·소프트웨어 통합 사업부에서 클라우드의 사업부 내 매출은 소프트웨어(기존)의 비중을 4개 분기 전 최초로 상회했다.

오라클은 주요 클라우드 기업인 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대비 기존 데이터센터 기반이 상대적으로 작은 가운데, 급증하는 AI 인프라 수요 대응을 위해 CAPEX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다. 수주잔고의 최근 3개 분기 YoY 성장률은 +359%, +438%, +325%였다. 연간 CAPEX 절대 규모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대비 작지만 증가 속도는 더 빠르다(그림 7).

FY 2026 CAPEX 연간 성장률은 136%인데, 오라클은 금번 실적 발표를 통해 수익성에 관한 우려를 일축했다. 1) 최근 체결된 290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AI 계약들은 고객이 장비 비용을 미리 지불하거나 직접 GPU를 공급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돼 현금흐름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고, 2) 확보가 완료된 10GW 이상의 데이터센터 용량 중 90% 이상이 계약 파트너를 통해 자금이 조달됐으며, 3) 3분기 인도된 AI 인프라의 매출총이익률은 32%를 기록하며 당초 가이드라인이었던 30%를 상회했다. 향후 AI 가속기 부문의 매출총이익률은 30%~40% 범위에서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4) 현재 건설 중이거나 인도 중인 모든 클라우드 용량은 높은 요율로 전부 계약이 완료된 상태이며, 5) 60%~80%의 마진을 기록하는 OCI 데이터베이스 부문이 전사 수익성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AI의 소프트웨어 대체 우려와는 달리, AI를 기반으로 수익성이 강화된 기업들의 실적이 연달아 발표되며 소프트웨어 주가의 회복세가 본격화되고 있다(그림 8). 경영진은 소규모 단일 기능에만 집중하는 SaaS 기업은 AI에 의해 도태될 수 있지만, 오라클은 그 대상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AI 모델의 코딩 능력이 발전함에 따라, 제품 개발 팀의 인원을 축소할 수 있게 됐으며 AI 코딩을 활용한 CX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해 AI를 통한 개발 혁신을 강조했다. 오라클의 12개월 선행 PER은 5년 평균(20.5배), 3년 평균(25.7배), 1년 평균(28.1배) 대비 낮다. 대규모 수주잔고로 매출 가시성도 확보된 상태다. 주가의 상승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매수 비율 78%, 평균 목표 주가 259.50 달러

최근 3개월 동안 오라클에 대해 투자의견을 제시한 증권사는 50곳이다. 매수 비율은 78%이고, 평균 목표 주가는 259.50 달러다. 현재 주가 대비 73.7%의 상승 여력이 있다. 제시된 최고 목표 주가는 400 달러(상승 여력 +167.7%)다.

[표1] 컨센서스 대비 분기 실적 비교 (단위: 백만 달러, 달러, %, %p)

	FY 3Q25	FY 2Q26	FY 3Q26	YoY	QoQ	컨센서스	차이
매출액	14,130	16,058	17,190	21.7	7.0	16,889	1.8
영업이익	6,195	6,721	7,378	19.1	9.8	7,208	2.4
EPS	1.47	2.26	1.79	21.8	-20.8	1.7	5.3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표2] 분기 컨센서스 대비 가이던스 비교 (단위: 백만 달러, 달러, %, %p))

	FY 4Q25	FY 4Q26	YoY	컨센서스	차이
매출액	15,903	19,084	20.0	19,081	0.0
EPS	1.70	1.98	16.5	1.95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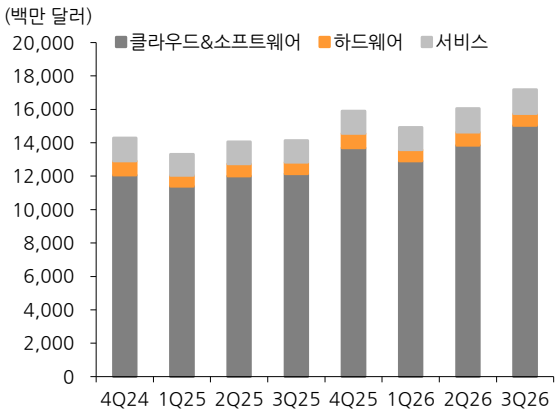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표3] 분기 실적 요약 및 컨센서스 (단위: 백만 달러, 달러, %, %p)

	FY 4Q25	FY 1Q26	FY 2Q26	FY 3Q26	FY 4Q26(E)	FY 1Q27(E)	FY 2Q27(E)	FY 3Q27(E)
매출액	15,903	14,926	16,058	17,190	19,081	18,753	20,585	22,239
(YoY)	11.3	12.2	14.2	21.7	20.0	25.6	28.2	29.4
클라우드&소프트웨어	13,705	12,907	13,854	15,033	16,740	16,582	18,078	19,666
(YoY)	13.5	13.3	15.4	23.9	22.1	28.5	30.5	30.8
하드웨어	850	670	776	714	847	666	760	718
(YoY)	1.0	2.3	6.6	1.6	-0.4	-0.6	-2.0	0.6
서비스	1,348	1,349	1,428	1,443	1,388	1,368	1,442	1,379
(YoY)	-1.8	6.8	7.4	11.8	2.9	1.4	1.0	-4.5
매출총이익	11,372	10,254	10,893	11,335	13,113	12,578	13,516	14,389
(YoY)	7.8	6.9	6.9	11.6	15.3	22.7	24.1	27.0
매출총이익률	71.5	68.7	67.8	65.9	67.5	64.7	63.6	62.9
영업이익	7,035	6,236	6,721	7,378	8,184	7,549	8,158	8,937
(YoY)	5.5	9.3	10.3	19.1	16.3	21.1	21.4	21.1
영업이익률	44.2	41.8	41.9	42.9	43.0	40.4	39.8	40.0
EPS	1.70	1.47	2.26	1.79	1.95	1.73	1.84	2.01
(YoY)	4.3	5.8	53.7	21.8	14.6	17.5	-18.4	12.6
PER	82.0	73.6	64.9	61.4	56.0	51.2	47.4	44.3
PBR	27.7	36.4	31.4	20.7	20.3	19.8	19.4	19.1
ROE	22.7	26.8	20.4	12.7	11.4	10.2	9.2	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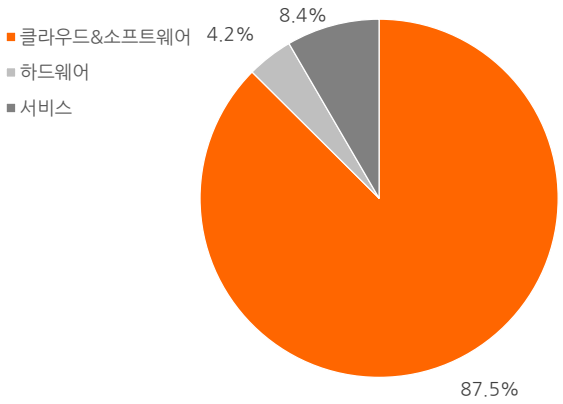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 사업부별 분기 매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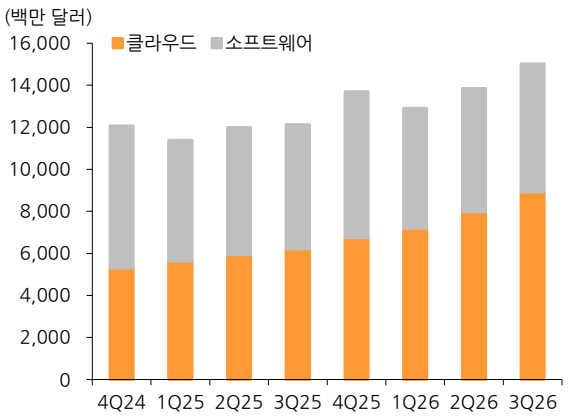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FY 3Q26 사업부별 매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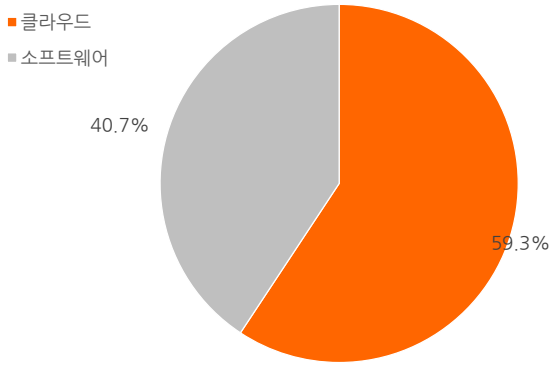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부문별 분기 매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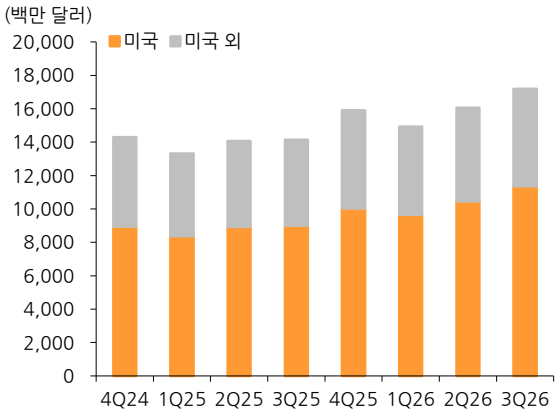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FY 3Q26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부문별 매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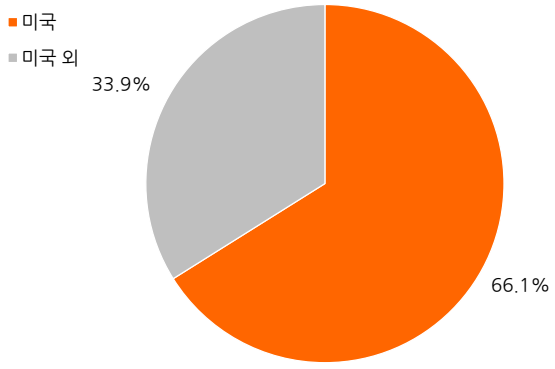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지역별 분기 매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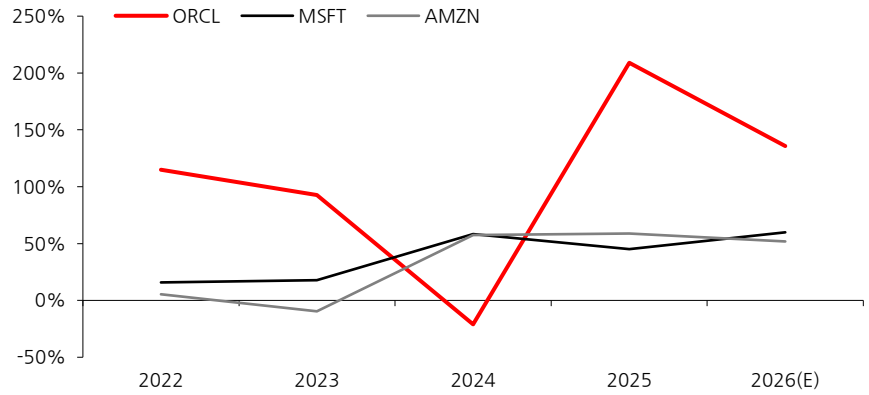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FY 3Q26 지역별 매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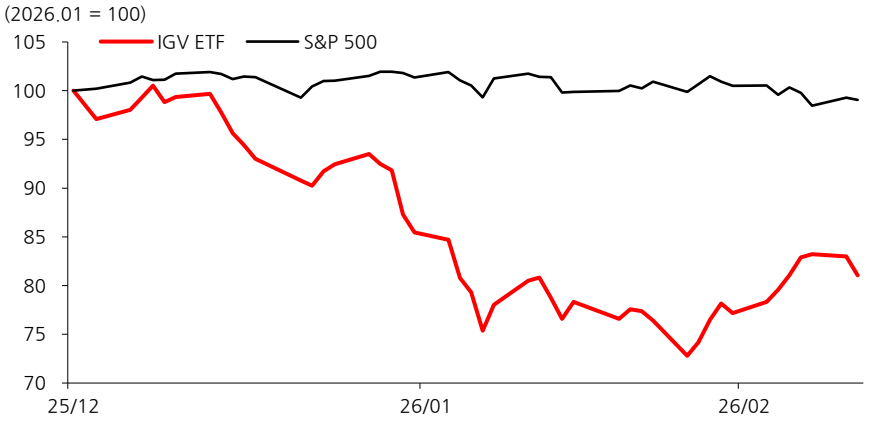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주요 클라우드 기업 CAPEX 성장률(YoY)



주: FY 2026 예상치는 오라클, 아마존은 가이던스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컨센서스로 표시
자료: Factset,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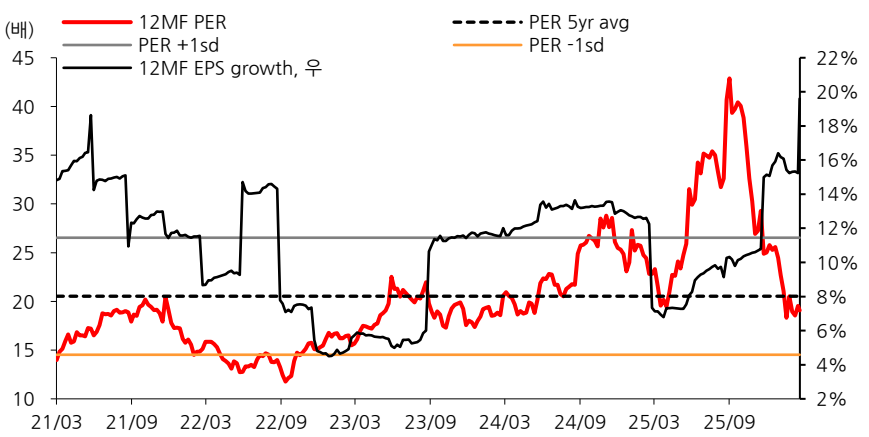
[그림8] 연초대비 상대주가: 소프트웨어 vs. S&P 500



주: IGV는 S&P 500 소프트웨어 대표 ETF
자료: Factset,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12 개월 선행 PER (5 년): 평균 표준편차

12개월 선행 PER은 19.1배로
5년 평균(20.5배)보다 낮다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공표일: 2026 년 3 월 11 일)

이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작성하였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했습니다. 본인은 이 자료에서 다룬 종목과 관련해 공표일 현재 관련 법규상 알려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인은 이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임해인)
저희 회사는 공표일 현재 이 자료에서 다룬 종목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종목 투자등급]

당사는 개별 종목에 대해 향후 1 년간 +15% 이상의 절대수익률이 기대되는 종목에 대해 Buy(매수)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한 절대수익률 -15~+15%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Hold(보유) 의견을, -15% 이하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Sell(매도) 의견을 제시합니다. 밸류에이션 방법 등 절대수익률 산정은 개별 종목을 커버하는 애널리스트의 추정에 따르며, 목표주가 산정이나 투자의견 변경 주기는 종목별로 다릅니다.

[산업 투자의견]

당사는 산업에 대해 향후 1 년간 해당 업종의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에 비해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Positive(긍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1 년간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과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Neutral(중립적) 의견을, 과거 수익률보다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Negative(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업별 수익률 전망은 해당 산업 내 분석대상 종목들에 대한 담당 애널리스트의 분석과 판단에 따릅니다.

[당사 조사분석자료의 투자등급 부여 비중] (기준일: 2025 년 12 월 31 일)

투자등급	매수	중립	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중	87.0%	13.0%	0.0%	100.0%